

08 숲속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

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108

개선배경



- 자연휴양림·산림욕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시 실질 개발면적이 기준이나, 유사 성격의 숲속야영장은 전체 구역면적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

[사 례] 경기도 **시에서는 2020년 **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개발되는 면적 6,000㎡이 아닌 전체 구역면적 50,000㎡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

개선내용



- 숲속야영장에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 규모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설치운영되어 환경훼손이 우려되나, 산림생태계, 빛·소음 공해, 수질, 폐기물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 검토(환경부)

개선 전	개선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목원조성,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치유의 숲 등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츠시설 추가 (전체 사업부지 면적 → 실질 개발면적)

* (시행일자) '22.9.14., 법령개정전 시행(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)



- '22. 02. 지역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
- '22. 03. 지자체 건의 및 테마과제 보완 및 중앙부처 제출
- '22. 05. 중앙부처 협의결과 수용 회신(환경부)

개선효과



- 당초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서 여가 레저의 활성화로 개별적인 시설로도 조성될 수 있게 법제화된 것으로 유사 휴양시설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림 여가 활동 보장

숲속 야영장



자연휴양림

